

“구민의 삶과 지역경제의 회복에 매진해야”



이강영 의장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제286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개회식을 마무리하며, 변화의 열망으로 출범한 제8대 의회가 어느새 반향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먼저, 큰 성원을 보내주시는 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8만 구민의 대변자로 히노에약을 함께한 동료 의원님들과 수개월째 백신 없는

■ 제286회 남 구 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

바이러스에 맞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제8대 전반기 남구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민생현안 해결에 혼신의 힘을 쏟았습니다. 아울러,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은 물론 의원발의 입법과 정책 건의도 여대의회 중 가장 활발히 추진했습니다. 저 역시 남구 최연소 의장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이해관계 조율과 의회 위상 제고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돌아보면 아쉬움도 남지만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밑거름이 될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코로나19에 따른 유례 없는 민생·고용 충격으로 정부

는 반세기만에 3차 추경을 준비중입니다. 자원과 정책을 총동원해서 구민의 삶과 지역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7월간의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9 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조례안, 사업 동의안 등 중요 안건들을 다루게 됩니다. 특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부분은 구 재정운영의 기준이 되는 만큼 심도 있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코로나라는 질병이 역설적으로 변화와 혁신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체제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고 구민에게 힘이 되는 정책

을 선제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최초 트램 유치, 긴급재난지원금 포인트 임시회 등 의회와 집행부가 한 마음으로 난관을 극복한 저력이 있습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길을 소통과 협치로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이제 곧 장마와 무더위의 계절입니다. 혹서기 안전대책과 취약계층 안전망도 한 번 더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수도권 중심의 집단감염이 아직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와 가족, 이웃의 소중한 일상을 위해서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꼭 지켜주시고, 남구의회는 집행부와 공조하여 촘촘한 방역체계 구축과 경제위기 극복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남구의회 후반기 원구성… 의장에 백석민 의원



백석민 의장

남구의회는 지난 6월 25일 본회의장에서 제287회 남구의회 임시회를 열고 의정당을 선출하는 등 원구성을 마

부의장에 강진우 의원

쳤다. 제8대 후반기 의정을 이끌어 갈 의장에 백석민 의원, 부의장에는 강진우 의원, 운영위원장 박수근 의원, 기획행정위원장 이병준 의원, 경제복지도시위원장 서성부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상임위원회별로 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을, 기획행정위원회는 기획행정팀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또한, 2020년 7월 1일자 본정 조직개편에 맞춰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제8

대 후반기 남구의회 원(院) 구성을 마무리하였다.

의장 백석민 의원, 부의장 강진우 의원, 운영위원장 박수근 의원, 기획행정위원장 이병준 의원, 경제복지도시위원장 서성부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상임위원회별로 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을, 기획행정위원회는 기획행정팀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또한, 2020년 7월 1일자 본정 조직개편에 맞춰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제8

의원 발의

김현미 의원 남구의회 위원회 개정 조례안

김근우 의원 공무원 의회 출석·답변 개정 조례안

백석민 의원 남구의회 사무분장 규칙안

허미향 의원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개정 조례안

제286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남구의회 운영 관련 조례와 규칙, 재난긴급생활지원금 관련 조례 개정이 있었다.

김현미 의원(대표발의) 외 6명의 의원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이 조례 개정안은 총무위원회의 기획행정위원회로 주민복지도시위원회를 경제복지도시위원회로 상임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원 구성 지역을 방지하기 위해 의정단 및 상임위원 임기

시민의 행복권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지역발전전에 역행하는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재고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정부의 방안과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하나, 공공기관 2차 부산 이전 약속 이행실태의 미미함에 우려를 표하며, 일자리 창출, 지역상권 활성화, 지역인재 채용 등 혁신도시 설립목적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공공기관 이전이 조속히 이행되어야 함을 청원한다.

이에, 우리 남구의회 의원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역행하는 행태를 묵과할 수 없어 지역발전과 350만 부산

2020년 6월 16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일동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 정책 촉구 결의문

▲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영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용호골목시장 주차장 조성부지 추가 매입](원안가결)
▲2021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영재산 관리계획안 [인성후반전지원센터 건립](원안가결)
▲2017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영재

산관리계획 변경안 [남구 끝마루지원 복합센터 변경 건립](원안가결)
▲부산광역시 남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2020년 6월 1일 제6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 정책이 정부 출범시 내세운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이라는 국정 어젠다에 후퇴하는 모습에 350만 부산시민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일동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정부는 지역불균형 문제 해결에 앞장선 참여정부를 계승하면서 자치분권으로 고르게 발전하는 균형잡힌 나라

를 위한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다양한 지역발전 정책을 펼칠 것을 표명하였다.

하지만, 이번 정부 발표내용은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해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 보조금, 강제 해택을 수도권까지 확대하는 방안으로 수도권 규제의 큰 틀이 깨지는 것이며, 이는 참여정부 계승의 의미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다.

또한, 공공기관 2차 부산 이전 약속 이행실태의 미미함에 우려를 표하며, 일자리 창출, 지역상권 활성화, 지역인재 채용 등 혁신도시 설립목적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공공기관 이전이 조속히 이행되어야 함을 청원한다.

이에, 우리 남구의회 의원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역행하는 행태를 묵과할 수 없어 지역발전과 350만 부산

5분 자유발언

획기적인 출산장려대책 시급



백 석 민 의원
(문헌1.2.3.4등)

남구 미래를 위한 출산장려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남구를 포함한 부산의 인구감소 문제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2019년 부산광역시 구·군단위 정래인구추계에 따르면 남구 인구는 2019년 27만 6천 명에서 2037년에는 23만 7천명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연간 출생아 수도 2014년 1,997명에서 2019년 1,213명으로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 감소추세는 청년인구 감소와 함께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어 출산을 저하에 대한 혁신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 대안으로 첫 번째, 구에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을 첫째 50만원, 둘째

150만원, 셋째 50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급할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현재 남구 출산장려금은 둘째 아이 30만원, 셋째 아이 50만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셋째 아이에 대한 지원은 아예 전무한 실정입니다. 젊은 신혼부부가 출산 자체를 꺼리는 현 상황에서 둘째아이부터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부산에서는 서구를 비롯한 6개 구에서 첫째자녀 출산지원금으로 10만원 또는 2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보여주기식 지원입니다. 출산장려금이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에 힘을 보태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현실적인 금액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우리도 출산지원 정책에 대한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번째,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합니다. 구청에서도 2018년 인구

정책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바탕으로 젊은 세대를 위한 일자리, 주거, 문화 등 제반여건을 조성하고, 남구만의 돌봄정책을 만들어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실제로 체감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 안타깝습니다. 제8대 의회에서 여성과 아동들을 위한 조례가 의원발의로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조례들이 단순한 선언적 의미로 그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에 반영하여 실현도 정책에 실행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중앙정부 및 부산시와 긴밀한 정책 공조를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나가야 하며, 더 나아가 정부차원에서 수도권 집중화와 이에 따른 지역불균형 문제를 해소하여 양질의 일자리가 지방에 생겨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용호부두와 쏠자리 일일 개발 방향

리장 부지의 공동개발 계획이 예상되었지만, 쏠자리와 제2하수처리장은 빠진 보고되었습니다. 개발의 일부분에 그치는 단기적 개발계획보다는 이 일대를 아우르는 해양문화관광 클러스터 지정과 장기적 개발계획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불러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중한 남구의 자원이 용호부두와 쏠자리 개발을 위해 보다 더 유익한 방안 모색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주민 소통과 논의가 필요할 때입니다. 용호부두 주변은 2005년~2009년 공영수면이 매립되면서 메트로시티아파트, 자이, 더블유 등 대규모 주택단지가 들어서면서 1만 1천 가구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역개발에 대해 남구 주민들은 삶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고려한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개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 의한 일방적 개발은 고도성장이 가능했던 70~80년대식 판 위주의 개발정책으로, 재정성립과 경제구조에도 맞지 않으며, 풍족 보다는 풍요를, 소

유보다는 행복을 추구하는 21세기형 개발취지에도 역행하는 구태입니다. 남구의 환경적 생활환경이 주민들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고 추진되어야 하기 위해 주민 설명회 등 소통을 위한 노력에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쏠자리를 중심으로 한 씨푸드 형식의 거리 존, 용호부두주변은 친수공간 및 리조트 체류존, 제2하수처리장 부지는 가족, 단층 관광객들의 터미널 공간 설치 등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청취하고, 개발에 따른 문제점과 사업성 평가 등을 공유하는 쌍방향 소통 노력이 더해져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되고 남구 고유의 특색을 지니며, 관광객들에게도 사랑받을 수 있는 개발사업으로 추진해 나갔으면 합니다. 남구의 개발이 거대 외부자본의 성과로만 끝나지 않도록, 남구에 태어나 남구에서 아이를 키우고, 남구에서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우리 남구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개발계획이 되도록 남구청의 책임 있는 노력을 촉구드립니다.



강 건 우 의원
(문헌2.3.4등)

현재 무가선트램 국책사업은 실시계획에 돌입하여 2023년 영업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고 2단계 구간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구청은 트램산업 육성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남구는 수도권의 경쟁자들을 제치고 대한민국 최초 트램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보행 안전 위한 전동킴보드 대책 마련을

자치단체보다 남구에서 많은 전동킴보드를 볼 수 있지만, 문제는 안전사고가 해마다 2배 이상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자전거 도로에서 전동킴보드를 허용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대환란이 야기 될 것이며, 부산 전체 자전거 도로 중 경음도로의 비중이 높다는 점 또한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입니다. 전동킴보드와 관련한 도로 무단 적치 문제도 있습니다. 현재, 전동

킴보드가 자유 주차 방식인 프리플로팅(Free floating)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어 아무 곳이나 세울 수 있고, 아파트 입구, 인도 중앙, 경사로, 보행자 이동로 등에 킴보드가 무분별하게 세워져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여 민원이 다발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른 개인형 이동수단의 확대도 우리 사회가 받아들이야 할 하나의 신문물이지만, 사고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로 사정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앞으로 신설하는 자전거도로는 가급적 전용도로 형태로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전동킴보드의 자전거도로 허용이 정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대책 수립을

산 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불은 271건으로 15명의 인명피해와 소방서 추산 약 3억 8천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화재원인은 공사현장 화재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부주의’ 원인으로 일어난 것이 271건으로 전체 80.1%를 차지하였는데, 이 중 음영, 음단의 부주의가 114건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공사 현장은 건축물과 달리 소화 설비 구축이 되어있지 않아 화재 위험 작업 시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등의 임시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됩니다. 그러나, 공사현장에서 임시 소방시설 설치를 제대로 이행

하고 있는지 의문이며,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점검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부산시 공사장은 4월 기준 605개소로, 남구에는 68개소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임시소방시설을 점검한 결과, 98곳 현장에서 10건의 과태료, 행정처분 조치가 이뤄졌으나, 또한, 고용노동부에서는 모든 공사장에 화재 감지자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인건비 등의 비용 증가로 잘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남구가 화재로부터 안전하기 위한 ‘공사장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형식적, 서류상 안전대책이 아닌, 공사현장

트램산업 육성·관광 활성화 방안 제안

이제는 트램도입의 궁극적 목적인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준비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산 남구를 대한민국 트램의 성지로 만들 ‘무가선트램 산업육성 및 관광활성화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부산 남구를 무가선트램의 세계적인 성지로 만들어, 도입효과를 극대화 할 ‘트램 테마파크 조성’을 제안합니다. 오륙도트램 약 20여 곳의 본보기가 될 것이며 해외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선만 보여주는 형태가 아닌 종합적 트램 테마파크 조성을 제안합니다. 테마파크는 일반인 체험이 가능하고 트

램 연계 홍보관 등 각종 유가시설 조성을 의미합니다. 공공기관 유치, 산업육성, 홍보관 등 다양한 관련 테마를 붙여 넣어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부산시에 시티투어 등 관광코스에 트램을 활용하여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연계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합니다. 시티투어 버스와 연계된 트램타켓을 판매하고, 트램을 타고 오륙도~용호시장(전통시장체험/기프트샵)~테마파크(차량기지)~이기대공원 등을 연결하는 연계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정비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점포로 떠오른 만큼 설계 기준 변경 등 세부적인 사안을 고민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전동 킴보드와 관련한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동킴보드 이용이 많은 지하철역 주변 등에 주차구역을 시설 설치해 운영하고 있어 아무 곳이나 세울 수 있고, 아파트 입구, 인도 중앙, 경사로, 보행자 이동로 등에 킴보드가 무분별하게 세워져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여 민원이 다발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른 개인형 이동수단의 확대도 우리 사회가 받아들이야 할 하나의 신문물이지만, 사고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로 사정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앞으로 신설하는 자전거도로는 가급적 전용도로 형태로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전동킴보드의 자전거도로 허용이 정

의 모든 여건을 고려하고 판단하여 실질적 안전대책 수립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남부소방서,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의 전문가와 협치하는 ‘안전점검단’을 구성하고 운영하길 바랍니다. ‘안전점검단’은 공사현장의 위해요인을 찾아내고, 이를 사전에 조치할 뿐만 아니라 시공·품질 관리 등의 공사장 전반적인 관리를 해야 합니다. 하인리하라는 법칙은 큰 사안이 하나 터지기까지는 28건의 작은 사고가 나고 300건의 징후가 드러난다고 하였습니다. 즉, 대형 사고는 경미한 사고들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사소한 사고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발생요인을 찾아 조치하면 대형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온다고 해도 전통시장과 영세상인들의 행편이 나아질 수가 없습니다. 관광객들이 와서 먹고 마시며 즐길 거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륙도를 중심으로 특산물이나 지역음식이 꼭 필요합니다. 무가선트램은 차세대 미래사업과도 연관되어 ‘그린뉴딜 정책’과도 그 맥락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환경에 관심을 갖는 국가에 대하여 수출 가능한 첨단 그린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대단한 사업입니다. 이것을 우리 남구가 최초로 하는 것입니다. 무가선트램을 반드시 성공시켜야하는 명백한 이유입니다. 트램 도입과 더불어 산업이 육성되고 관광이 활성화 되어야만 일자리가 더욱 창출되고 경제가 활성화되어 남구의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가지 않고 부산에, 여기 남구에 남아있을 것입니다.